

보험소비자, 수동적 고지의무 개정 착수

정운천 국회의원, 소비자 권익·편의 향상 시키기 위한 상법개정안 발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건강정보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동적 의무로 개정해 소비자 권익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법개정안 나왔다.

29일 국회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을 보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상법 제651조를 수정해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답하는 소극적 의무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고객)에게 건강정보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비전문가인 일반 보험소비자(고객)들이 여러 보험상품마다 각기 다른 중요사항들을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보험업이 발달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고객들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질문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보험소비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시 자기 돈을 주고 가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원하는 고지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험민원은 총 4만8573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직접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내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9일자 이슈와 논점 제1313호를 통해 정운천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보험소비자

고지의무와 관련해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현행 상법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고지의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 고지의무를 부과해 이를 지키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보험계약 시에 보험회사가 직접 질문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답할 의무만 부여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당연하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을 지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스쿨팜 모내기 체험 실시

홍산초등학교 대상, 우리 농산물 고마움 느껴

전북농협은 29일 전주 홍산초등학교에서 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 제고와 우리 농산물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농사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산초 5학년 35명의 어린이들과 김승환 교육감,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 최용구 농협은행 본부장 등이 참석해 농업 체험장에서 모내기 체험 및 농산물 수확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여자들은 벼 상자를 활용 한 별도 체험 공간에서 직접 모내기를 하고 지난 4월 중순에 식재한 채소밭에서 업체류를 직접 수확했다.

또한 수확한 채소들을 가지고 함께 점심식사 시간을 가지며 농산물

생산 및 수확과 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농부들의 고마움을 느꼈다.

김승환 교육감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텃밭 체험장이 우리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태호 본부장은 "앞으로 더 학생들이 즐거운 체험을 통해서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협동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쿨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농협과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월부터 11월 까지 전주, 군산, 익산 관내 초등학교 40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생진원, 동경국제식품소재첨가물박람회 참가

전북 공동관 운영, 일본 수출 판로개척 교두보 마련

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소재첨가물 전시회인 '동경국제식품소재첨가물박람회(IFIA JAPAN 2017)'에 7개사가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생진원은 전북 공동관을 운영해 수출 계약 30만 달러, 계약상당 15건 310만 달러 등 일본 수출 판로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22회째를 맞는 '동경국제식품소재첨가물박람회'는 식품소재 및 첨가물 전시회중 아시아 최대 규모다. 또한 품목별 섹터 구분이 명확해 전

문성이 높고, 약 40만 참가객의 50%가 전문바이어로서 한국의 우수한 소재를 찾는 바이어의 인지도가 높아 서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이 가능한 거점 전시회이다.

진흥원은 이번 전시회에 도내 식품소재 및 첨가물기업 7개사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사전 마케팅을 통해 현지 바이어를 부스로 초청해 1:1 상담을 추진하는 등 참가기업들의 수출 연계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 중 남원에 소재한 감지 제조회사인 보감은 일본 현지 식자재 유통기업과 GABA

유산균 함유 김치류 3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고 연내 추가납품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소재 식품 살균소독제, 식품첨가물 전문제조회사인 나로 또한 일본의 식품회사로부터 식품첨가물 수출납품 상담을 진행하고 연내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전주시 소재 프로바이오티스의 식물성 유산균 원료 및 완주군 소재 지니스의 지방흡수 유산균 소재 등도 다수의 바이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추가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전시회와 연계해 일본 현지 aT동경지사를 방문해 도내 농식품의 대일본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안재용 기자

이 자리에서 김호동 동경지사는 농식품기업의 일본 진출에 필요한 전략목표 발굴, 현지 바이어 연계 지원 등에 대해 진흥원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전북 농식품기업의 일본 시장 수출을 공동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원장은 "일본 시장은 기능성 소재, 건강기능식품의 선진시장으로 가능성이 우수한 도내 식품소재, 첨가물 원료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물론 서구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국가"라며, "도내 기업들이 시장성이 좋은 유망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해 전문바이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수출 판로지원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국토정보공사, 농촌 봉사활동·무료 법률상담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이웃기관과 손잡고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을 찾아 희망 불어넣기에 앞장서고 있다.

공사는 29일 2012년부터 1사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김제시 거여마을을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찾아 봉사활동과 함께 생필품을 전달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공사를 비롯한 합동 봉사단원 60여명은 이날 오디 따기와 환경정화 등 모자란 일손을 도와주고, 마을 가꾸어 회관에서 사용 할 주방기구를 전달했다.

또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LX사내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상담, KESCO의 무상전기시설 점검, NPS의 국민연금 제도 상담 등 마을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재용 기자

중소기업청,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 받는다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전북중소기업청은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이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

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 또는 전북중소기업청에 문의(☎210-6433)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농진청, 향암·향산화 물질 높은 쌈배추 개발

농촌진흥청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은 쌈배추를 개발했다.

이 쌈배추는 배추종 중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야생자원의 유지배추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낮은 청경채를 교잡해 개발했으며, 글루코시놀레이트 중 향암성분으로 알려진 글루코라파린과 글루코나스터틴이 일반배추보다 10배~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쌈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에는 식물에만 존재하는 물질인 파이토케미칼 성분의 하나인 글루코시놀레이트도 다량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몸 안의 활성산소의 축적을 막아줘 세포손상을 줄이고, 암과 관련된 호르몬 생성과 종양을 억제할 뿐 아니라 병해충을 예방하면서 식물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안재용 기자

또한 이번 쌈배추는 소포자배양이란 품종개발 기술로서 단시간에 고정 식물체를 육성하는 기술을 이용했다.

소포자배양이란 F1 잡종식물의 어린 소포자를 배양해 식물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플로이드(n)를 조직 배양해 형태적, 유전적으로 다양한 배추 고정계통을 육성하는 기술이다.

결각이 높은 것 모양의 유지배추 잎 모양과, 결각이 없는 타원형 청경채잎 등 다양한 잎모양을 가진 148계통의 배추 고정 계통을 육성했다.

이들 148계통중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 11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추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 생합성 관련한 연구는 농생명과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FEBS Open Bio(2017년)와 Plant Molecular Biology(2016년)에 게재했다.

/안재용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